

김정근 담론의 방법론적 특징

- 저서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독해 -



글 · 김 영 기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ykk@star.ks.ac.kr)

● ● 글을 본다는 것

부산대학교 김정근 교수가 2005년 2월로 정년퇴임하였다. 그는 '도서관 현장과 학문과의 간격 좁히기'라는 일생의 화두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방법론의 개척과 글쓰기의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나는 그의 학문 활동을 가까이서 지켜보아 왔던 나 자신의 경험과 공동작업실에서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읽었던 논문들을 배경으로 하여, 나의 앞에 놓여있는 그의 책을 되도록이면 사실적이고도 자세히 한번 독해를 해 보려고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내가 지금까지 그의 말과 행동을 보아왔던 것처럼, 여기서는 우선 그의 글을 본대로 진술한 것이다.

어떤 사람의 글을 본다는 것은 그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진술하게 드러내 보인 다음, 다시 그것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의식상의 변화발전과정을 본다는 말이다.

나는 저자의 의식세계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보아 왔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의식세계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저자의 대학도서관의 운영주체와 장서문제에 대한 의식상의 발전과정은 이 책의 머리말 부분 '이 책이 나오기까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글의 중간 중간에도 문제를 발견하고 해석하며 치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까지의 의식의 흐름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의식의 흐름을 저자가 주로 사용한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방법론적인 독해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정근이는 멋이 없어, 도서관밖에 모르거든”

글을 읽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알면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하리라는 생각은 쉽게 할 수 있다. 여기서도 글을 쉽게 풀어간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글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김정근의 일부를 드러내 보이기로 한다. 김정근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말들 가운데 그의 동료 교수가 뱉어낸 ‘정근이는 멋이 없어, 도서관밖에 모르거든’ 이 한마디는 도서관에 대한 그의 애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이 말이 김정근은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정말 아무런 멋도 없으며 다른 분야에는 완전히 문외한이라는 뜻은 아니다. 조금만 자세히 관찰하면 그의 관심영역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다.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역사학, 문학 등의 인문사회과학은 물론이고 자연과학이나 예술 등 예까지 그의 관심은 뻗쳐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강의나 토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고, 그의 연구실에서 한권씩을 차지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가 도서관밖에 모른다는 것은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대상이 그를 거쳐나갈 때에는 어떤 식으로든 도서관적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을 뜻하리라.

일례를 들면 이렇다. 지난 어느 가을날 그는 문정포럼을 시작하면서 시를 한 소절 인용한 적이 있다. 신경림의 시 ‘파장’이라고 기억된다. 알맹이는 다 떠나고 무지랭이만 남아있는 농촌의 현실을 노래한 시였다. 그는 이 시를 잘난 사람들은 대접받는 곳으로 다 빠져 나갔지만 그래도 곳곳하게 도서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도서관 현실로 풀어냈다.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끼리 막걸리잔 앞에 놓고 실컷 한번 떠들어 보자는 식의 포럼을 시작하는 인사말이었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신경림의 시 罷場의 한 구절)’는 말을 덧붙이면서.

그는 또한 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들고서 그의 연구실을 두드리는 자가 있으면 힘이 솟아나는 형의 사람이다. 몇 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들고 가면, 그냥 놓아주는 법이 없다. 적어도 한 끼 이상의 밥을 함께 하면서 기나긴 논의가 이어진다. 따라서 그를 만날 때에는 할 말을 잔뜩 준비해 가지 않으면, 그는 이내 흥미를 잃고 심한 꾸지람을 하기가 일쑤다. 이러한 사실은 내가 논문 지도를 받을 때 온 몸으로 터득한 것이다.

● ● 혼돈 속에 질서가

방법과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사람의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연구실을 살펴보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누구나 그의 연구실을 처음 본 사람은 어떤 혼돈을 느낄 것이다. 빛 바랜 카펫, 골동품이 다된 책상, 여러 개의 걸상과 함께 있는 널찍한 탁자, 세 면의 벽면을 끼고 도는 서가, 무언가로 가득 채워진 파일 캐비닛 등만 본다면 여기까지는 평범한 연구실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금방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 우선 다양한 분야의 책과 함께 서가를 꽉 메우고 있는 것은 팜플렛이나 복사물, 빠라, 면담자료, 그림, 테이프, 사진 등등의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의 다양한 모양이나 크기가 그의 연구실을 어지럽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 어지러움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자세히 그려 낼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기란 단순히 눈을 통한 관찰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와 함께 도서관 문제에 관해 그의 연구실에서 대화를 나누어 본 사람이라면, 그 방의 자료들이 갖고 있는 모종의 질서를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만약 어떤 사람이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문제를 들고 그 방을 들어섰을 때, 그 방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쉽게 연상할 수가 있다. 아마도 그는 부산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 모두를 다 들먹일 것이며, 그때마다 어느 한구석에서 그 도서관에 관련된 각종의 자료들 - 즉 그 도서관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비롯하여, 도서관 안내책자, 행사를 알리는 팸플릿, 어느 제자가 학기 중의 또는 논문을 위해 조사한 각종 인터뷰 기록 등의 자료들 - 이 그의 손을 거쳐 토론자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는 또한 전국사서협회의 부산지회가 조사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관련 자료들이 협회 관련 자료들을 따로 모아놓은 한켠에서 뽑아낼지도 모른다. 이러한 자료들이 그와 토론자의 사이에 쌓이면 쌓일수록, 그의 발언은 사실성과 무게를 더해 갈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그의 연구실의 네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장서들은 문헌정보학을 하는 사람치고는 일반도서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제3세계 관련 장서가 강하다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장서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3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파올로 프레이리(Paulo Freire)라든가 프란츠 파농(Franz Fanon)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서가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그의 장서를 바라본다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다.

그의 연구실에 있는 자료들이 갖고 있는 질서란 이런 것이다. 그가 보통 앉는 책상에서 오른

쪽으로 두어 칸 옆의 서가에는 김용옥이 다 모여 있다. 그의 저작을 비롯하여, 잡지에 게재되었던 글이라든지 그가 참여한 토론 또는 강연에서의 연설 등도 있을 것이다. 그의 정면에 있는 서가의 아랫부분과 창문 쪽의 파일 캐비닛에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깊숙한 내용들까지 다 들어와 있다. 대학본부나 기획실에서 발간하는 자료, 도서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도서관 소식지나 안내 팸플릿, 도서관개혁운동 중에 학생들이 만든 어낸 대자보라든지 이를 보도한 교내외 신문기사들,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보내온 건의편지, 그가 관장 또는 부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생산되었던 각종 보고서나 공문사본, 학생들이 수업의 진행을 위해 이 도서관을 분석한 과제물, 일하면서 또는 토론 중에 떠오른 각종 메모들...

나는 그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어느 구석의 어느 자료를 책상위로 옮겨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런 일이 몇 차례나 반복되었는지도 상상할 수 있다. 책상 위에 이러한 자료들을 잔뜩 쌓아놓고 중간 중간의 메모와 눈을 통한 관찰, 대화 속의 아이디어 등을 들추며, 한 줄 한 줄의 여백을 채워 나갔으리라.

●● ● 질적 연구

김정근이 그의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방법은 '측정이나 조작적 정의보다는 참여관찰이나 심층면접기법 등을 통한 귀납적 분석과 기술을 중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와의 관련이 깊다.

자연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사회현상조차도 수량화를 통해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소위 양적 접근이 오랫동안 사회과학의 일반적인 방법론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인간현상과 자연현상의 현저한 차이가 지적되면서 인간현상의 독특

한 영역에 적합한 연구방법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각 개인의 특유의 경험세계를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을 기존의 양적 연구에 대비하여 질적 연구라고 부르고 있다. 아마도 김정근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방법은 이러한 질적 연구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거의 대부분 적용하면서도 제3세계적 관점이 가미된 채 문헌정보학의 제반 현상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쯤에서 질적 연구의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아래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세 편의 저본에서 질적 연구의 개념이해를 위한 부분을 간추린 것이다.

우선 질적 연구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사람들과 장소, 대화내용들에 대한 풍부한 기술적 자료이며 통계적 절차에 의해 쉽게 취급될 수 없는 연성적인 성격을 가진다. 연구문제는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절차가 아닌 상황 속의 모든 변인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설정된다.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자는 나름대로의 연구초점을 설정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답을 얻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문제나 검증할 가설을 미리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또한 연구대상자 나름의 기준에 비추어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변인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연구대상자들이 일상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이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연구 자료를 모으는 경향이 있다.

질적 연구의 가장 잘 알려진 대명사는 참여관찰법과 심층면접법이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를 위해 알고 싶고, 알려지고 싶고, 그리고 신뢰를 받고 싶은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 자기가 듣고 관찰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기록

한다. 나아가 현장에서 발행하는 통신문이나 안내문, 신문기사, 사진 등과 같은 자료들도 보충적인 자료들로 활용한다.

한편 질적 연구에 있어서의 면접에서는 질문지는 사용되지 않는다. 가끔 대략적으로 고안된 면접지침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구자 자신이 유일한 도구이며 연구대상자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면접이 구사된다. 또한 질적 연구는 세부적이고 깊은 내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은 것이 대부분이다.

질적 연구와 관련된 용어들로서는 현장연구(field research), 민속기술적(ethnographic),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자(symbolic interactionist), 내적관점(inner perspective), 시카고학파(The Chicago School), 현상학적(phenomenological), 사례연구(case study), 해석학적(interpretive), 민속방법론적(ethnomethodological), 생태학적(ecological), 기술적(descriptive) 등이 있다.

● ● ● ● 김정근의 글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이제까지 김정근의 글을 읽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그에 관련된 몇 가지 일화와 연구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의 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질적 연구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도 시도해 보았다. 이제 그의 글을 본격적으로 읽기 위해 그가 사용한 방법과 자료를 읽을 차례이다.

나는 김정근의 글에 대해서는 꽤나 친숙해져 있는 독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끔씩 그의 글을 나의 직장동료들에게 보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글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의 글쓰기의 형태는

분명히 일반 연구자들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면이 있다. 그러한 반응들 중의 한 가지는 우선 쉽고 재미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반응 중에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어서 시원하다는 것도 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도 지적했듯이 '과제에 걸맞은 문장스타일의 갈등과 제시기술의 방법론적인 고심'을 꾸준히 해 왔으며, '논문이 가지는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언어들에서 철저히 탈피'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앞에 놓인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1인칭 관찰자의 시점에서 관찰대상과 관련을 맺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를 지켜보며, 때로는 그에게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의 행동을 분석하고 해석해 낸 한 편의 논픽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 '논문을 쓴다는 것이 도서관개혁 차원의 작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김정근의 글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는 모두 네 개의 대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도서관 운영주체의 문제가 첫째 대목이고, 장서개발의 문제가 둘째 대목이며, 셋째 대목은 장서개발 과정에 있어서 사서 주도성의 문제이다. 그리고 넷째 대목은 조직발전이 있어서 계기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종종 첫째 대목을 주체 논문으로, 둘째와 셋째 대목을 장서 논문으로, 넷째 대목을 계기 논문으로 부르곤 한다. 이 네 편의 글은 모두다 관찰 또는 부관찰로서의 참여 관찰을 마친 직후에 쓰인 것이다.

한편 이 네 개의 대목들은 거의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각각의 대목들은 무엇이 왜 문제인가로 시작하여, 이 문제를 설명할 방법과 자료를 찾아낸 다음, 이 자료에 대한 해석 작업

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구성양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고정화된 틀을 의식하며 방법과 자료문제를 형식적으로 언급하고 지나가는 대부분의 연구자들과는 달리, 김정근의 글에서는 방법과 자료의 문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 이 점은 그가 글을 쓰는데 있어서 방법과 자료의 문제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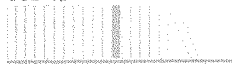
그는 그의 '아메리칸 오디세이'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운영주체의 문제와 장서문제에 대한 고민을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은 그것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으며, 그러면서 그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과 자료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는 '관찰 범위의 제한성과 자료의 가용성'으로 인해 부산대학의 도서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대학도서관의 문제를 인식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앞에서 나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3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가 그의 연구실에 있는 장서들의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고민의 뿌리가 매우 오래 되었음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이 책 역시 이러한 고민의 도서관적 발현으로 파악될 때 그 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학문적 화두가 구체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을 짚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는 12년이 넘는 기간의 외국생활 이후 독서와 강의, 대화, 그리고 현장관찰이 시작된 첫 학기에 '왜 현실과 언어가 서로 다를까? 왜 도서관의 현장은 저처럼 아득히 낙후해 있는데 강단의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김정근 저



문학과출판사

언어는 이처럼 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일까? 과연 저 도서관 현실 앞에서 이 같은 언어의 유희를 일삼고 있을 만한 여유가 우리에게 있는가? 라는 학문적 화두를 '발견' 하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이 화두는 다음 학기에 '왜 현실은 엄연한 한국의 현실인데 강단의 언어는 외국어인가?' 로 점점 구체화되어가기 시작한다. 즉 '눈앞에는 너무나도 한국적인 도서관 현상이 처연하게 땅위에 누워 있는데 강단의 언어와 처방은 외국어로 하늘을 날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 학문의 수입상적인 성격에 대한 본격적인 반성은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계의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되자, '학문의 현실적합성과 실천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품게 된다. 이러한 제국주의 학문의 극복을 위해 '현실에 적합한 학문'과 '우리 학문의 실천성'을 고민하던 중에 부산대학교 도서관개혁운동의 언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학문적 화두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볼 때 제국주의 학문의 극복과 우리식 문헌정보학의 제창이라든지, 우리 현장의 현단계 규명을 위해 사람과 장서의 문제를 운동성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글의 본질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다.

● ● ● ● **답론의 방법론적 특징**

그렇다면 김정근이 대학도서관의 주제문제와 장서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김정근의 글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에 어떤 방법론적인 특징이 발견되고 있는가?

나는 그의 글이 갖고 있는 방법론적인 특징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제의 의도된 진부성'이 그 하나요, '외국의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며, '0.01의 오차 따위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남은 하나이다.

첫째는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주제에 관련된다. 이 글에 있어서 그의 화두 굴리기의 대상이 된 것은 대학도서관의 사람문제와 장서문제이다. 사람들이 입만 벌였다하면 '정보화시대'를 이야기하고 '첨단'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는 너무나도 진부한 사람의 문제와 장서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부성이 의도된 진부성임을 그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의 글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의 현장, 현 단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너무도 크고 많은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첨단'과 '미래'와 '21세기'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하는 보다 더 근원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도서관의 사람문제와 장서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문제이다. 즉 그는 '운영주체의 부재현상'과 '기본 장서의 미비'라는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새롭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서 그가 왜 이처럼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장과 현단계에 밀착된 기본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가 제기하고 있는 주제의 진부성, 그러나 의도된 진부성이 그의 글이 갖고 있는 첫 번째의 방법론적인 특징이 된다.

두 번째의 특징은 외국의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의 어느 부분에도 외국문헌을 읽고 참조는 하고 있지만 직접적 인용이나 대입은 발견되지 않는다. 서양문헌 읽기는 그에게 '안목'

으로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도서관 현장을 토대로 하여 연구를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그의 견해는 그의 글을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외국의 현상에 근거해서 도출된 이론을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한 잣대로 삼을 수는 없다는 논지이며, 우리의 문제는 우리 현장의 현 단계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문방법론이 그가 제창하고 있는 '우리식 문헌정보학'이며, 이것은 제국주의 학문의 극복과 우리 현장의 현단계를 규명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이 점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제3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가 그의 연구실을 차지하는 장서들의 주된 테마가 되고 있으며, 이 책 역시 이와 같은 고민의 도서관적 발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사실과도 연결된다.

그의 글이 갖고 있는 세 번째의 방법론적인 특성은 0.01의 오차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따위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는 숫자를 이용하여 크다, 작다, 또는 같다는 등의 명료함이 라는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중요한 논증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은 도서관이라는 사회현상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구성원 또한 통계적으로는 취급될 수 없는 주관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0.01의 차이를 말하는 식의 방법은 뚜렷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김정근의 글 속에는 통계로 논증을 하려 한다거나 이를 통해 비교하려는 부분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방법이 자신의 연구방법으로는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부분이 몇 군데서 발견되고 있다. 즉 상투성도 배제하고 '통계를 뿔

은 다음에' 말하려 들지도 말며, '눈에 들어오는 대로' 말을 해 본 다음 여기이다 '인류학적이며 고고학적인 해석 작업'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근의 글이 갖고 있는 이 세 번째의 특징은 질적 연구에서 수집되는 자료가, 사람들과 장소, 대화내용들에 대한 풍부한 기술적 자료이며, 통계적 절차에 의해 쉽게 취급될 수 없는 연성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김정근은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식의 방법으로 현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 ◎ 담론의 자료

김정근의 담론이 갖고 있는 방법론적 특징을 이해하고 나면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추출해 내는 작업은 매우 수월해진다. 그것은 자료는 방법에 의해 규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에 관한 논의가 방법론적 특성을 말한 앞부분에 일정정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담론의 기초가 되고 있는 자료에 관한 부분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담론의 자료는 도서관의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사무문서와 자신의 관찰 및 체험, 그리고 또 다른 관찰자인 학생들의 대자보문장이 주가 되고 있다.

먼저 그의 관찰이 어떻게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는 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관찰은 그가 도서관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로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있다. 그의 말을 빌리면 그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여러 가지 입장과 커페이티'에서 보아왔다.

도서관의 이용자로서, 대학도서관 관련 교과목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이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계획에 참여하는 연구자로서의

그는 '외부적 관찰자'였다. 그리고 그는 이 도서관의 '매일 매일의 전체과정에 부관장과 관장의 자격으로 참여' 하는 '내부적 관찰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내부적 관찰기간을 통해 그 이전까지 관찰의 피상성과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시기에 생산된 가장 중요한 문서는 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도서관소식> 1-6호이다. 이 문서의 중요성은 '사서 자신이 업무의 수행자이면서 분석자가 되며,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글을 쓰고 발표를 함으로써 담론의 담지자가 되어있다'는 점이다. 즉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별다른 여과과정 없이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각종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자체기술세미나 내용의 대부분, 사서직원의 해외연수 보고서, 외국 전문가 초청세미나의 내용들이 두루 실려 있다.

도서관소식 이외에도 관장이 총장에게 올린 정책건의, 업무계획, 업무추진보고, 그리고 업무부서에서 관장에게 올린 업무계획이나 결과보고에도 도서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실려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그의 외부적 관찰기간과 내부적 관찰기간을 증언하고 있는 유형의 기록들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의 관찰과 함께 직접 안으로 들어가 구석구석 속속들이 들여다 본 경험이 주는 무형의 관찰 역시 이 글의 무게를 지탱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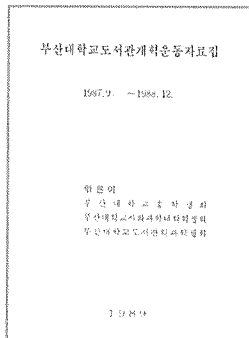
자신의 관찰에 못지 않게 그의 글을 지탱하고 있는 정보원은 학생들의 관찰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대학교도서관개혁운동자료집 1987.9 ~ 1988.12』(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등 편, 1989, 이하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당시 도서관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1987년 하반기부터 약 1년 반에 걸쳐 진행시킨 도서관개혁운동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당시에 대자보로 나왔거나 전단으로 뿌려

졌던 모두 36편의 대자보문장과 이 개혁운동과 관련된 총장공고문, 도서관발전위원회 중재안, 학교 측 답변자료, 운동일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의 대자보문장에서 '약간의 사실적인 면에 있어서의 부정확성과 표현의 부분적 조야성에도 불구하고 정보원(information sources)으로서의 중요성'을 발견해 내고 있다. 즉 '주문생산의 인위성과 조작성이 배제된' 이런 유형의 자료를 '피상적인 관찰만으로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은폐되고 조작된 현실'을 '이들 학생문서를 매개로', '연구자의 분석이나 해석의 기술이 첨가될 때 놀라울 정도로 진실에 대한 조망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결국 그 자신의 관찰과 이용자들의 관찰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외국의 사례를 우리의 현장에 적용하려 들지 않고, 0.01의 오차 따위도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도서관이 당면한 기본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그것은 질적 연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참여관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 질적 연구들에 대한 도서관적 대응 - 결론에 대신하여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산대학교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로써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 학생들이 교내의 곳곳에 붙인 대자보 문장이나 전단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료집』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쩔 뻔하였는가? 그리고 관장이나 부관장이 아니면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는 연구자가 있다면 과연 연구의 진행이 가능하거나 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굳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지는 않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도서관 쪽에 있다. 도서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서들은 도서관이 소장해야 할 자료에 대한 개념을 확대·변환시켜 나가야 한다. 더 이상은 우연성에 매달린 채, 개인 학자들의 관심과 노력에만 맡겨 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연구자들 또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선행 문헌이나 뒤적이다거나 선부른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뽑아내는 따위의 연구 행태가 지속되는 한은 모든 책임을 도서관 측에만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김정근의 글을 보면 누구나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심지어는 많은 연구자들이 자료로서의 가치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파헤쳐 내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책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부류의 자료들에 대한 정보원으로서의 가치의 인식은 도서관의 자료개념을 재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원시자료의 정

보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정보를 제공하는 쪽과 이용하는 쪽 모두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Barritt, L. S. 등 지음. *교육연구와 현상학적 접근*(홍기형 옮김). 서울: 문음사, 1990.
- Bogdan, Robert C. & Biklen, Sari Knopp.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1982. (신옥순 옮김, *교육연구의 새 접근 :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1991.)
- Glazier, Jack D. & Powell, Ronald R. *Qualitative Research in Information Management*. Englewood: Libraries Unlimited, 1992.
- Merriam, Sharan B.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8.
- Yin, Rober K. *Case Study Research : Design and Method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4.
- 김영민. “논문 중심주의와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문학과 사회*(문학과 지성사). 제7권 제4호(1994). pp.1261~1282.
- 밴 매년, 막스 지음. 신경림, 안규남 옮김. *체험연구 - 해석학적 현상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동녘, 1994.
- 이강숙, 신용하, 이면우, 이명현의 좌담. “수입학문, 수입문화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철학과 현실*(철학문화연구소). 통권 20호(1994). pp.137~160.